

대행 스님

선과 악을 다 놓고 평화스러운 자유인이 되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여러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까닭을요. 정말입니다. 나는 어떤 때는요. 아휴! 내가 다른 것은 하나도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이구, 언제나 그 노랑두 상투를 길러서 내 낭군 되느냐.' 하는 셈으로 '언제나 길러져서 진짜 자유스럽게 저 집안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허! 날더러 하라고 뭐, 등에 써 붙였나?' 이러면서도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임은 소임대로 아주 끊고 맺고 해야죠. 못하든 잘하든 말입니다. 자기의 할 일은 자기가 해야죠.

덮어놓고 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하고 거짓 없이 해야죠. 이 세상 진리가 아주 거짓 없이, 선업이면 선업대로 피할 길이 없고, 악업은 악업대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다 놓고 평화스러운 자유인이 되라 이러는데 왜들 싫다고 하겠습니까? 돈이 바가지로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가지고 마음대로 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자1(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스님 복 많이 받을 것도 없고 안 받을 것도 없고, 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질문자1(남) 스님께서는 고구정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은 미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신선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신선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연연해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싫어하니, 세상이 싫어서 신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바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세상이 싫어서, 왜 이런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를 고민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혹은 몹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그것이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은 부자를 건너다 볼 수도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허허허…. 포기해서 신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신선이라는 것은, 내가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도리를 알아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도리를 안다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신선이에요. 그러니 내가 항상 얘기하죠.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막지 말아라. 오는 대로 모든 것을 대치해서 놓고, 가는 것도 잡지 말아라.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 거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 공부 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신선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막론하고.

질문자1(남)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 처지가 힘드니까 신선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왜 내가 힘들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좀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큰스님 으응,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서 아주 피치 못하고 그냥 사는 거니까, 자기가 벌여 놓은 거니까 자기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나오는 것도, 못나게 나오는 것도, 모습을 짐승으로 나오는 것도 뭐, 개로 나오는 것도 모두가, 부자로 사는 것도 자기가 지어 놨기 때문에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지 누구한테 원망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닥치는 대로 그것을 재료로 알고, '어, 내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게 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감사하구나, 오히려.' 그러고선 거기다가 놓고 그렇게 간다면 다시금 그게 바꾸어지죠. 운명이나 팔자,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인과성 이런 것이 다 몰락 그냥 없어지죠. 지금 없애고 가시는 길이죠, 모두.

질문자1(남) 예, 스님 말씀을 "현실에 오는 어려움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서 나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큰스님 예. 사실인 걸요, 뭐.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어느 도인의 말로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감이 태어나기는 해도 이 땅이 골육상전의 기운이 있는지라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의 인물을 죽여 버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거나 세상을 살아 보아도, 나라를 망치거나 사업을 실패할 때도 적이나 경쟁자보다는 같은 민족이나 친한 사람의 해침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은 이런 점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친한 사람들끼리 더 해치려는 마음이나 시기심이 강한지, 또 이런 국민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요?

큰스님 그런데 그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모든 국민성이 물질로만 치닫는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계의 그 모든 너그러움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숨겨져 있거든요. 바깥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보배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서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나섰다 하더라도 치워 버리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상 이 마음의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보죠. 아까 내가 떡 먹는 사람 얘기했죠. 저 중국의 왕이 '음, 조선을 치면 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이야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이 생명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즉 세계로 비추어 볼 때 전력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력들은 다 통하게 돼 있죠. 어떤 용도로 쓰든 전력은 전력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불바퀴는 그대로, 세계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불바퀴와 저 불바퀴를 한데 합치면 (손바닥을 서로 부딪쳐 보이시고) 둘이 아닌 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를 막론하든지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희망하면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사람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딴 데서는 할 수가 없어.' 하고 관해 보세요. 모두 물질계에서 처참하게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밟으면 또 떨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모든 마음들을 한데 합쳐서 기울여 보시면 중국에서 말한 뜻이 아마 나올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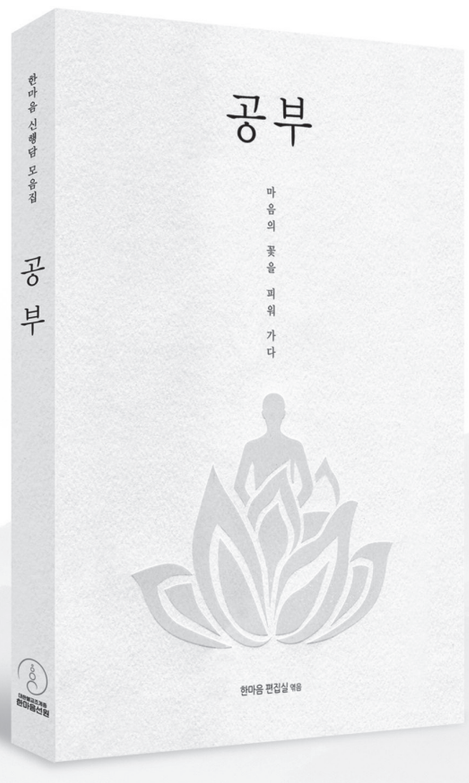
질문자1(남) 결국은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 그렇죠. 평등공의 법이라는 것은 철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선지들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전부 한손이 돼서 응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깐요.

질문자1(남)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에서 중국의 사업가가 한국 사람들이 신용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비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이런 유의 이야기는 비일비재합니다. 큰스님께서 좋은 거짓말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나 가족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